

6·25때 소실된 고찰, 승리부대에 중건

호국의 달, 군법당을 찾아서

② 15사단 천불사



미당 서정주의 '천불사시비'

신라고찰 천불사 주춧돌 옮겨와 중건

1980년 서정주 등 불자 마음모아

양측에 계곡끼고 아름다운 가람배치

긴 산골의 길을 지나 신록이 찬연한 곳에 위치한 천불사. 서울에서 약 3시간 가량 구불구불 이어진 계곡길을 따라 가면 나오는 숨겨진 보고(寶庫)다.

철원군 천불산에 신라 법흥왕 17년(530년) 헤카스님이 창건한 화천 천불사. 현재 군법당인 천불사가 자리하기까지는 긴 세월이 필요했다.

신라고찰인 천불사는 전소된 이후 조선 인조 16년(1638년)에 해운 스님이 중건했다. 당시만 해도 천불사는 작은 규모로 천불암이라 불렸다. 천불사가 제대로 된 사격을 띄게 된 것은 고종 31년(1894년) 중수되면서부터다.

하지만 천불사는 다시금 수난을 겪게 된다. 바로 민족 상잔의 비극 한국전쟁이다. 한국전쟁 당시 화천 지역은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곳이다. 천불사가 위치한 천불산 일대도 역시 고지 쟁탈을 위한 전투가 벌어졌다. 천불사는 소실됐는데 천년고찰의 흔적으로는 주춧돌과 기와만이 남았다.

현재 위치한 화천군 명덕리로 천불사가 옮겨진 것은 1980년에 이르러서였다. 1952년 11월 강원도 양



강원도 화천에 자리한 천불사 대웅전 모습. 신라 법흥왕 당시 지어진 고찰 천불사의 주춧돌을 가져와 중건했다. 대웅전은 그동안의 화재에도 1980년 모습을 그대로 지니고 있다.

양에서 창설된 부대로 1953년 당시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승리부대'라는 칭호를 부여받은 제15사단이 이곳에 자리하며 군법당의 필요성을 느꼈다.

하지만 군법당이 들어서기까지는 꽤 긴 시간이 필요했다. 수많은 불자들의 원을 담아 군법당이 건립된 것은 1980년. 1980년 천불사 주지법사로 처음으로 부임한 김말환 법사는 당시 전소된 터를 찾아 주춧돌과 기와를 가져와 법당을 개설했다.

당시 미당 서정주 시인은 천불사를 찾아 축시를 남기기도 했다.

가문날에 오시는 단비 같이
장마 뒤에 비치는 햇빛 같이
어디가나 언제나 남감이 없이
모든 목숨 살려내는 부처님 마음
여기 이 천불사에 간절히 모시나니

신라통일 때 이겨려 도우신 그 힘 백감찰 하여 우리를 이끄소서 그 어느 악도, 병도 두루 씻게 하소서

- 미당 서정주

천불사는 전방지역 불사의 중심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이때 지어진 천불사의 가장 큰 특징은 양쪽으로 계곡물을 끼고 건립했다는 점이다. 여느 군법당과 다른 점이다. 직접 살펴본 천불사의 호나경은 좌정릉 우백호의 풍수지리 가람배치가 인상깊다.

예전에는 이 계곡물로 인해 수해도 많았다고 한다. 1997년 천불사가 있는 명덕리에서는 폭우로 인해 큰 수해가 발생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피에서인지 법당만큼은 피해를 입지 않았다. 1999년 대광강대남 법사가 도량을 정비하였다. 그 이후 무렵 이

태군 법사가 근무할 당시 또 한번의 수해가 발생한다. 이때는 범당 마당이 유실됐으나 불자였던 공병대 대대장의 지극한 노력으로 계곡에 제방을 쌓고 도량을 일신해 피해가 없도록 했다. 최근에는 제방 시설을 잘 해놓아, 계곡과 어우러진 멋진 사찰 환경을 뽐낸다.

특히 승리부대 훈련병을 위해서는 2003년 신규법당을 지었는데 90평 규모로 최대 400명이 동시에 법회를 볼 수 있는 등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천불사를 돌아 나오는 길은 찾은 이들에게 또 다른 재미를 선사한다. 발길을 재촉하면 신록이 찬연한 광덕계곡이 나온다. 광덕계곡의 싱그러움 풀내음을 맡으며 계속해 차를 달리면 구불구불한 산길로 접어든다. 곧이어 유명한 백운계곡이 나온다. 푸르름을 벗삼아 발걸음을 옮겨보면 어떤가.

화천=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대웅전 양측으로 계곡물이 흐른다. 계곡을 따라 다리를 놓아 운치를 더했다.

"장병들 편히 쉬는 쉼터 역할"

주지 법찬 이재혁 법사



천불사 주지 법찬 이재혁 법사는 2005년 임관한 이후 현재 15사단 군법사로 있다. 이재혁 법사는 현재 천불사가 있기까지 수많은 선배 군법사들의 노력이 있었다며 군장병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쉼터로 꾸며가고 있다고 말했다.

사실 천불사는 최전방에 위치하고 있어 신도 수나 재정 등이 열악한 상황이다. 천불사 일반 신자는 인근에 민가조차 많지 않아 30여 명에 불과하다. 초하루 관음·지장재일에는 군 신자 10여 명이 찾고 있다.

하지만 천불사를 찾는 장병들은 평균 100~140명 가량에 달한다. 이 법사는 "인근 27사단 포병부대를 비롯해 인근부대의 인원도 소화하고 있다"며 "법회 때 법당에 다 앉지 못하고 밖에 서있는 장병들을 보면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최근 천불사는 인터넷 포교에 힘써 신병교육대 카페를 개설해 장병들의 사진을 게시하고 가족들의 편지를 전달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다.

"전방의 군법당 중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는 곳이 많습니다. 군장병 포교 활성화를 위해 군법당 불사에도 불자들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변 안보 관광지

화천은 국내 최대 안보관광지다. 화천은 동으로는 양구, 서쪽으로는 철원, 북쪽으로는 경기도 포천, 남쪽은 춘천, 북쪽은 철원과 접해있다.

태백산맥의 허리 끝인 금강산에서 서남쪽으로 뻗어 내린 광주산맥이 거지면서 백암·재안·사령산 같은 1,000m가 넘는 산이 열 개도 넘는 전형적인 산악지대로 때묻지 않은 청정자연을 자랑한다. 휴전선을 맞대고 있는 화천은 해방 직후 북한에 속하였고, 6.25때는 격렬한 격전지였다.

때문에 제대로 남아 있는 마을이나 가옥이 거의 없을 정도로 폐허화 됐고, 댐건설로 인한 수몰이 유

물 수장시켰다.

꽃다운 나이에 쓰러져간 무명용사의 넋을 노래한 가곡 '비목'이 있으며, 고려시대 것으로 짐작되는 위라리칠층석탑, 조선 현종때 성리학자 김수증 이후학을 가르치던 회음동정사지 등이 있다.

▲승리전망대

휴전선 155마일 중 정중앙에 위치하는 승리전망대는 가장 북한 쪽 관측이 잘 되는 곳으로 북한군의 이동모습을 물론, 경원선철도, 광삼평야, 아침리 마을 등 남북 분단의 현장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곳이다. 15사단 관할 지역으로 차량으로 20분 가량 이동하면 된다.

▲평화의담과 평화의종 공원

화천 관광의 중심에는 평화의 담과 평화의종 공원이 있다. 화천을 동중리에 만들어진 평화의 담은 북한인 수공(水工)에 대비해 국민 성금으로 만들어졌다. 북한 금강산담의 위협이 부풀려졌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때 공사가 중단되는 우여곡절을 겪었으나 2단계 공사가 2005년 마무리됐다. 이 때문에 평화의 담은 민족 분단의 아픔과 함께 화천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느낄 수 있는 여행지로 꼽힌다.

▲이외수의 감성마을(사진 오른쪽)

천불사에서 차량으로 5분 거리에 있는 화천 상서면 다목리의 다목 감성마을은 이외수 씨 문학 작업

실 등이 자리하고 있다. 감성마을은 이외수 씨를 중심으로 감성 테마 문학공원을 구성해냈다.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다양한 문화 체험을 즐길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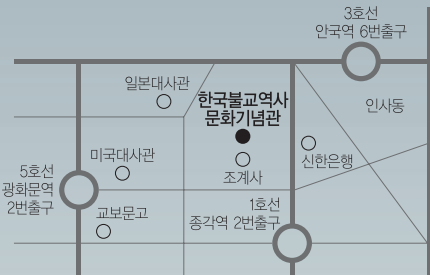
전통 불복장의식 및 점안의식 시연회

일시 | 불기2558(2014)년 7월 9일(수) 오후 1시
장소 |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

부처님의 모습이 그리워 불상을 조성하고 생명을 불어 넣어 예경한지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불상에 생명을 불기 위한 의식은 오장육부를 채우는 복장의식과 정신을 깨우는 점안의식으로 거행됩니다. 복장점안의식은 사찰에서 비밀리에 행해지기에 많은 이들이 그 심오함을 알지 못하여 의식이 어법한 절차로 거행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이에 본 보존회는 복장의식과 점안의식이 지닌 의미와 과정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귀한 시간 내서 함께 자리해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불교 전통불복장 및 점안의식보존회장 무 관 합장

주최 | 대한불교 전통불복장 및 점안의식보존회
주관 | (재)불교문화재연구소
후원 | 대한불교조계종 문화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10-170 서울시 중구 우정국로 55(경지동 45)
Tel. 021735-9945

대한불교 전통불복장 및 점안의식보존회



반야심경은
심(心)·불(佛)·중생(眾生) 모두
진공묘지(眞空妙智)에서는
본래 평등한 중도실상이고
열반피안(涅槃彼岸)임을 분명히 찬탄하고 있다

법상유식학으로 풀이한
반야심경 송찬우 편역 | 신국판 | 340쪽 | 14,800원

유식(唯識)을 바탕으로 마음 도리와 불교교리를 통설하다

『반야심경』은 부처님 49년 장광설법인 일대시교(一大時敎) 가운데 21년 동안 설한 광대하고 심오한 6백부 『대반야경』의 핵심 요지를 빠짐없이 원만구족하게 간직하고 있는 글수이다. 본서에서는 불교의 근본교인 세간·출세간의 모든 인과차별상(因果差別相)과 성(性)·상(相)이 둘이 아닌 중도실상진공(中道實相眞空)으로서의 열반을 더불어 비추고 있다. 이를 근본차제로 의지해서 일으키는 3관수행문(三觀修行門)과 현실반야(顯說般若)와 밀담반야(密談般若)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상과 교리체계를 날날이 함축하고 있다. 실로 이는 교리적으로나 사상에 있어서도 위대한 보고서라 할 수 있다. 탄허스님으로부터 교(敎)를, 성수스님으로부터 선(禪)을 배운 동현학림 송찬우(前중앙승가대 교수) 원장의 역작.

비유과소통 02-2632-8739, buddhapia5@daum.net